Part. 3

한국의 나눔 행동과 태도 측정 : 방법론적 고찰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책임연구자

김성주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학력

School of Social Work, Indian University, Ph.D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Minor Ph.D.

주요경력

Monmouth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djunct faculty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Research fellow

연구실적

Lee, L. & Kim. S. J., (2020). The effect of government grants on private giving to East Asian nonprofi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managers. Advances in Social Work, 20(1), 95-113.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4(6), 1-71.

Jeong, B & Kim, S. J. (2019). NPO/NGO higher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Social movement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driv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9(1), 39- 62.

Kim, S. J., & Kou, X (2014). Not all empathy is equal: How dispositional empathy affects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26(3), 1-23.

Kim, S. J. (2014). Joint crowd-out: Will charitable donors cut donations to human service organizations when the government increases welfare spending? Journal of Nonprofit Management. 17, 24-47.

공동연구자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박사과정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前 헬싱키 경제대학원), Executive MBA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Global MBA

연구실적

2019. 『기빙코리아 2019』 중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분석: 1990~2018", 기부문화연구소

2019. 『이화 사회적경제 리뷰 2019』 중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 투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공저)

2018. "사회혁신 툴킷 2018", 아름다운재단 (공동번역)

2017. "국내 비영리조직 투명성에 관한 인식조사", 아름다운재단 (공저)

한국의 나눔 행동과 태도 측정 : 방법론적 고찰

The Estimate of Philanthropic Behaviors and Attitudes in South Kore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김성주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장윤주 • 아름다운재단

요약

각국의 나눔지표 측정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 비영리 연구 중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 기부 지표 측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측정된 지표에 대한 명확성과 신뢰성 등의 이슈가 동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모든 기부지표 측정 연구들을 파악하고, 측정된 기부지수들을 분석한 다음, 각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9개의 한국의 기부지표 측정 연구를 수집하였으며, 총 6개 연구의 결과와 조사방법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기부금액 총량을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한국 자선 연구에서 중요한 방법론적 이슈가 제기되었는데, 기부 정의부재, 기부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 부실, 샘플링 및 분석단위 이슈, 및 기타 연구 방법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키워드 : 자선 활동, 기부 및 자원 봉사, 연구 방법론, 나눔지수 측정

I. 서론

지난 수십년간 나눔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비영리 연구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 지수를 측정하는 연구는 주로 서구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캐나다의 기부,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조사 (Canada Survey on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CSGVP]), 네덜란드 패널 조사 내 기부 데이터 (Giving in the Netherlands Panel Study, [GINPS]), 미국 인디에나 대학의 필란트로피 패널 연구 (Philanthropy Panel Study [PPS]) 등을 들 수 있다(Hall, 2001; Wiepking & Handy, 2018; Wilhelm, 2002). 그러나 최근들어 나눔지수 연구는 서구권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비서구권나라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는데, Wiepking 과 Handy(2018)의 연구에 따르면 나눔 측정 연구는 적어도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고하였다(예, 프랑스, 필란드,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이사, 일본, 한국 등).

특히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나눔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2001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실시한 '기빙코리아' 프로젝트를 최초로,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의 나눔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oh, 2013). Kim and Jung (2019)에 의하면 '기빙코리아' 이외에 한국인의 기부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5개가 더 있다고 보고하였다.

측정된 기부에 관련된 지표들은 각국의 나눔문화의 수준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측정된 기부 지표가 얼마나 그 사회의 나눔문화를 정확하게 대변하는지에 대한 지적은 비영리 연구자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구 문화를 기반으로하는 기부에 대한 정의와 기부 측정방식이 다른 문화의 기부행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비영리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제기되고 있다(Breen & Quinn, 2019; Cnaan et al., 2011; Nesbit, 2010; O' Neill, 2001; Rooney et al., 2001; Steinberg et al., 2002; Wiepking & Handy, 2018; Wilhelm, 2002). Cnaan et al.(2011)은 기부에 대한 개념적 정의, 응답자 표집방법, 응답기록의 오류, 그리고 과거 기부행위를 회상하기 위한 설문구성의 문제 등 총 4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Hall(2001)은 온라인 또는 간접 설문 조사방식이 기부 행위를 측정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기부행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간단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실제 이루어진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ekkers & Wiepking, 2006; O' Neill, 2001; Rooney et al., 2005).

이러한 나눔지수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부지

표 측정 연구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연구들의 방법론적 이슈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 함으로써, 명확하고 정확한 한국의 기부지표를 측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장에서는 한국과 그 외 다른 나라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측정 연구들을 살펴보았고, 두번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기부지수 측정의 방법론적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세번째 장에서는 조사된 국내 기부지표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나눔 지표를 정확하기 측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문헌고찰

나눔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지난 몇십년 동안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섹터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예를들어, 2018년 국제나눔환경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GPEI) 연구에서는 79개국의 나눔 환경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18), Wiepking 과 Handy(2018)는 전세계 19개국에서 열아홉개의 기부지표 연구를 정리하였다. 측정된 기부지표는 각 나라의 나눔 수준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회의 성숙도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부 지표 측정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Cnaan et al., 2011; Hall, 2001; Rooney et al., 2005; Russell, 2016; Steinberg et al., 2002; Wilhelm, 2002). 이 장에서는 한국의 연구와 더불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나눔 지수 측정 연구를 검토하고,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방법론적 이슈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1. 해외의 나눔 지수 측정 (Global philanthropic estimations)

미국의 나눔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기부와 자원봉사 데이터는 1974년의 정치 및 사회 연구를 위한 대학간 콘소시엄(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에서 실시한 국내 필란트로피 연구(National Study of Philanthropy,[NPS])이다(Morgan, 1974; Wilhelm, 2002). NPS 연구를 시발점으로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대표적인 미국 기부지표 측정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1) 인디펜던트 섹터에서 수행한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1988-1999)(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GVUS]); 2) 1999 사회조사 (the 1999 General Social Survey,[GSS]); 3) 2000 캘리포니아 기부 및 자원봉사 (the 2000 Giving and Volunteering in California,[GVC]); 4) 2001 패널 스터디 인컴 다이나믹스의 필란트로피 PSID (the Philanthropy Panel Study, [PPS] in Panel Study Income Dynamics, [PSID]). 4개의 연구 이외에, 미국 센서스의 인구조사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미국 선거 조사 (2008-2009년 22차) (the 22nd wave of 2008-2009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ANES])에서도 미국의 기부지표를 조사하였다(Cnaan et al., 2011; Nesbit, 2010; Kim & Kou, 2014). 다음은 4개의 대표적인 미국의 기부지표 측정연구에 대한 요약이다.

1974년의 NPS가 미국 최초의 나눔 지수 연구로 알려져 있지만,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신뢰성 있고 광범위한 조사는 인디펜던트섹터(IS)에서 실시된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GVUS) 연구이다. 인디펜던트 섹터는 1998-1999년동안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방식으로 실시된 나눔에 관한 행동 연구이다. IS에서 보고된 기부지표 측정 결과는 한동안 미국 내 나눔 연구의 기준점으로 사용되어 왔다(Cnaan et al., 2011). GVUS 연구에 의하면 약 70%의 미국 가구가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둘 중 한명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미국인들은 가구평균 수입의 2%를 기부하고, 50%가 한달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Cnaan et al., 2011; O'Neil, 2001).

기존에 실시된 사회조사(GSS)에서 1996년 부터 기부와 자원봉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미국의 기부지표를 발표하고 있다(Brooks & Lewis, 2001). GSS에서는 공식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와 더불어 비영리조직에 전달된 비공식 기부에 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수집된 1,444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76.1%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Wilhelm, 2002). GSS의 보고에 의하면, 총 응답자의 72%가 자선적 기부에 참여하였고, 58%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Brooks & Lewis, 2001), 기부자 일인당 연간 평균 1,485달러를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ilhelm, 2002).

캘리포니아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GVC, 1998-1999)는 O'Neil and Robert(2000)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나눔 수준을 탐구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지역 성인 2,4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35%가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90% 이상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O' Neill, 2001; Wilhelm, 2002). 또한 GVC 연구에서는 50%이상의 응답자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는 비영리조직에 직접 기부하였으며, 73%는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평균 기부금액은 연 평균 1,247달러로 측정되었다(Wilhelm, 2002).

또 하나의 중요한 미국의 기부지표 측정연구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란트로피 패널 조사(PPS) 이다. PPS 연구는 예전에 필란트로피 패널 연구(COPPS)라고 불려졌었는데, 미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종단연구(panel study)인 PSID의 한 섹션으로 자료가 조사되고 있다. PSID는 1968년부터 미국의 경제, 사회,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가구단위로 조사하는 가장 오래된 종단연구로써(Nesbit, 2010; Osili et al., 2019), 2001년부터 기부 섹션을 추가하여 조사 가구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을 추적해왔다. 2001년 첫 회기에 7,063가구가 자료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017년 9회기는 9,049가구로 늘어났다(Osili et al., 2019). 2000년 연구에서는 총 응답자의 66.2%가 기부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고, 기부 참여율은 최고 65.4%(2018년 조사)와 53.1%(2016년 조사) 사이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Osili et al., 2019). PPS 연구에서 측정된 평균 기부금액은 2,584달러에서 2,763달러로 2000년에서 2016년 동안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외의 미국의 기부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로는 인구조사(CPS)와 2000년 미국선거조사(ANES)를 추가 할 수 있다. 인구조사는 실업, 고용, 근로시간, 수입과 같은 국내 노동인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센서스국과 노동통계국이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로(Nesbit, 2010), 2002년 CPS 조사에서 기부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Gouskova et al., 2010; Nesbit, 2010). 이 조사에서는 평균 기부금액을 주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최소 평균 기부금액은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a)주이었으며, 평균 450달러를 기부하였고, 최고 평균 기부금액은 유타주(Utah)에서 평균 2,200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esbit, 2010). 그리고 미국선거조사 (ANES)는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에 관한 설문을 하는 연구인데, 2008-2009 22차 조사에 기부항목이 포함되었다. 2008년 ANES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있는 만 18세 이상 2,270명이 응답해 64.4%의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86.9%의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금액은 1,449달러로 보고되었다(Kim & Kou,2014).

미국 이외의 나눔 지수 측정 연구로는 캐나다, 영국, 네델란드, 그리고 일본의 나눔 지수 측정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기부 지표 측정 연구는 캐나다의 기부, 자원봉사 사회참여조사(Canadian National Surger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CSGVP])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1997년 캐나다 내 다수의 비영리조직과 연방정부가 함께 진행하였으며(Hall, 2001), 3년마다 15세 이상의 가구를 랜덤으로 표집하여 조사해 오고 있다(Barham et al., 2017; Hall, 2001). CSGVP 연구에서는 네 가지 주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고 있는데, 네가지 사회적 행동은 ①모금조직에 대한 기부, ②비영리조직 자원봉사, ③조직의 관여 없이 가족 이외의 개인을 돕는 행위, ④그룹이나 협회 멤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Wiepking & Handy, 2018). 이 조사는 모든 회기에서 약 78%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Hall, 2001).

CSGVP 연구에서는 2004년 총 응답자의 87.4%가 기부에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88.4%가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평균 기부금액은 1인당 각각 1,544달러와 1,593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Barham et al., 2017).

영국에서의 기부와 자원봉사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의 CAF UK Giving 연구와, 사회조사연구센터에서 실시하는 헬핑아웃(Helping out) 연구가 있다(Breeze, 2013). CAF UK Giving은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부행동에 관한 조사로서(Charities Aid Foundation, 2019),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옴니브스 조사(the Omnibus Survey)의 한 파트로써 조사되고 있다. CAF UK Giving은 일년에 몇차례 자료가 조사되고 있으며, 각 설문조사시 기부행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4주간의 기부행동을 기억해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Piper & Schnepf, 2008). CAF(2019)에 따르면, 2016년에는 69%의 응답자가 기부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018년에는 총 응답자의 65%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CAF(2019)의 보고에 따르면 영국인 6명중 한명은 2018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것으로 조사되었다.

헬핑아웃 (Helping out) 연구는 영국 내각에 속해 있는 사회조사센터의 제3섹터 사무국에서 수항하는 영국의 포괄적 나눔에 관한 연구로써, 영국에 거주하는 2,156명의 응답자를 표집하여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Butt et al., 2007; Wiepking & Handy, 2018). 2016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모금단체에 기부한 것을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59%가 비영리조직에서 공식적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Butt et al., 2007).

네덜란드의 나눔측정 연구는 예전에 네덜란드의 기부(Giving in the Netherlands,[GIN])로 불렸던 네덜란드 패널 조사(The Giving in the Netherlands Panel Survey, [GINPS])가 있다(Bekkers et al., 2018a). GINPS는 1955년도 부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필란트로피 연구소(Center for Philanthropy Studies)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2년에 한번씩 설문조사하였으며, 2002년에 이루어진 첫 조사에서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1,707가구가 조사에 참여하고, 2016년에는 1,192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Bekkers et al., 2018). 전 회차에 걸쳐 네덜란드인의 평균 기부 참여율은 80%로 조사 되었으며, 연 평균 약 224달러 또는 가구수입의 0.6%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kkers et al., 2018b).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나눔 기부 측정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사회조사(Japanese General Social Surve, [JGSS])(Taniguchi & Marshall, 2014)와 일본의 기부와 자원봉사 연구(Japan Giving and Volunteering Study: [JGVS])를 예로 들 수 있다(Wiepking & Handy, 2018). 이 중 JGVS 연구가 일본의 대표적인 기부지수 측정 연구라 할 수 있다. JGSS 연구를 간략하게 살표보면 2000년 부터 무작위 층화추출방식으로 선별된 일본 내 20세 이상 성인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로써(Taniguchi & Marshall, 2014), 응답률은 48.4%~64.9%까지 다양했으며, 2005년 기준으로 70%가 기부를, 22%가 자원봉사를 했다고 응답했다(Taniguchi & Marshall, 2014; Taniguchi, 2010).

JGVS는 일본모금가협회(Japan Fundraising Association)에서 2010년부터 진행된 연구로써 일본의 대표적인 나눔 기부 측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일본 전역에서 설문을 위해 등록된 13,89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을 적용하여 선별된 샘플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Okuyama & Yamauchi, 2015). 2016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45.4%가 기부에 참여하였고, 기부자 중 43.8%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중 75.6%가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n.d.).

2. 한국의 나눔 지표 측정 연구

역사적으로 한국은 가족이나 지인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에 입각한 고유의 기부인식이 있었으나(Smith et al., 1999), 식민지시대(1910-1945), 한국전쟁(1950-1953), 독재시기(1948-1988), 산업화(1960s – 1980s)와 도시시화(1953-1990s)를 거치면서 한국 전통의 기부문화는 서양의 기부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Kim, & Jung, 2019: H. Lee,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지난 삼십년간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화의 성장으로 한국의 고유한 기부문화와 서양적 개념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개인과 단체의 기부행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ivic Movement Information Center, 2015; J. Choi, 2012; 김석은 & 안영찬, 2014; H. Lee, 2018).

기부문화가 성숙되면서, 비영리학계 및 연구소 등에서는 한국의 기부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견인하였는데, 노연희(2013)의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당시 6개의 국내 기부 지표 측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 Jung(2019)의 연구에서는 노연희(2013) 연구에서 보고된 연구물들 중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지고 있는 5개의 연구를 자세하게 검토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Kim & Jung, 2019; 노연희, 2013, 노연희 외, 2019)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총 9개의 실증 연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Kim & Jung, 2019; 노연희, 2013, 노연희 외., 2019). 1)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2) 통계청 사회조사; 3)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4) 보건복지부 한국복지패널; 5)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실태조사; 6) 서울시 스마트시티정책관 서울서베이(서울서베이);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8) 서울복지재단 서울복지패널; 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이다.

[표 1] 국내 나눔 데이터셋

	데이터셋	조사기관	조사 시작년도	최근 조사년도
1	기빙코리아	아름다운재단	2001	2018
2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19
3	여성가족패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011
4	서울복지패널*	서울복지재단	2008	2010
5	재정패널	조세재정연구원	2008	2018
6	사회조사	통계청	2011	2019
7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서울연구원	2015	2018
8	서울서베이	서울시 스마트시티정책관	2005	2019
9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1967	2019

Note: * 조사가 종료된 데이터셋.
[Source] 아름다운재단 (2018); 보건복지부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서울복지재단 (2010); 조새제정연구원 (2018); 통계청 (2018); 서울연구원 (2018); 서울시 스마트시치정책관 (2019); 국세청 (2019)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는 한국에서 실시된 최초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실증연구로써 2001년부터 조사되었다(Pamala & Handy, 2018). 2001년~2003년까지는 매년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4년부터는 격년으로 짝수해에는 개인기부, 홀수해에는 기업기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인기부조사는 2018년에 수행되었다. 기빙코리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기부행위 및 자원봉사만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실증연구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기부 행위 측정 연구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 가구의 규모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설문대상 가구의 50%는 저소득 가구, 50%는 소득 중상위 가구가 포함되었다. 전체 조사항목 중에 기부에 관한 항목은 기부참여여부와 기부금액, 두 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연구원에서 가족관계, 가족 가치, 가족구조와 형태 변화를 포함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과 직장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는 데이터로써, 조사대상은 19세에서 64세 여성 가족 구성원이 있는 9,000가구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기부에 관한 문항은 없고 자원봉사 문항만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나, 이 문항도 2008년조사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되어

더이상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연구에서도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조사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와 복지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 부터 실증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기부행위에 관한 항목은 기부참여여부, 평균 기부금액, 수혜기관별 기부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기빙코리아 이외에 기부행위에 관한 조사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 상세하게 조사되는 연구로써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광범위한 실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조사는 197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총 10개의 사회영역 — 가족, 노동, 건강, 환경, 교육, 소득과 소비,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 에 대한 국가승인 종단연구이다(통계청, 2019). 이 조사는 총 10개의 영역을 5개 영역씩 두 그룹으로 묶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영역을 격년으로 조사해오고 있는데, 2011년부터 기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서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기부항목에 관한 조사는 2019년 조사에 포함되어있는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연구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부행위에 관한 조사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의 기부행위에 관한 조사는 모두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며, 서울시 서울서베이, 서울복지재단 서울복지패널,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연구들이 포함된다. 서울복지재단의 서울복지패널 조사는 2008년부터 서울시 거주 가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3,304가구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조사하였다. 2010년에는 2,893가구 6,204명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는 2010년까지 수행된 후 중단되었다(서울복지재단, 2010).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복지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서울시민 3,00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복지실태와 욕구조사를 위해 3년 주기로 조사되었는데, 2015년과 2018년 조사에 기부항목이 포함되었다(서울연구원, 2018). 서울서베이는 서울시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조사되는 통계로, 25,000가구 42,99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부터 기부와 자원봉사 문항이 삽입되었다(스마트 시티 정책 센터, 2018).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는 개인과 기업이 세금공제를 위해 신고한 기부금액 총액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한국에서 기부금 총량을 추정 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기부행동을 측정하는 연구는 표1과 같이 9개가 있으나,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간단한 설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는 기부지표 뿐만아니라 기부 동기, 지속성 여부 등 기부행위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국 기부 지표 측정 연구들에서 보고된 기부지수의 명확성 및 신뢰성에 관한 지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철희 외(2015)는 각각의 연구들이 매우 다른 측정방법과 설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부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가 기부 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나눔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고려사항

본 장에서는 한국 기부지표 측정 연구들의 방법론을 분석하기 전에, 나눔 지수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이슈를 정리하고자 한다. 앞선 각국의 기부지표 측정을 위한 선행 연구 정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기부지표 측정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이와 동시에 많은 연구에서 기부 지수 측정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Bekkers & Wiepking, 2006; Cnaan et al., 2011; Hall, 2001, O'Neil, 2001; Rooney et al., 2001; Rooney et al., 2005; Steinberg et al., 2002; Wilhelm, 2002).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방법론적 이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 설계 2) 기부의 관한 개념틀 3) 설문의 단위 4) 통계 분석 방법(단순 평균 또는 다변량 분석) 등이 있다.

정확한 나눔 지수 측정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방법론적 요소는 측정도구의 설계이다(Bekkers & Wiepking, 2006; Hall, 2001, O'Neil, 2001; Rooney et al., 2001; Wilhelm, 2002). Hall(2001)과 O'Neil(2001)은 기부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시 응답자에게 과거의 기부와 자원봉사 경험을 최대한 회상할 수 있게 조사지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연구에서 설문 항목이 길고 구체적일 수록 과거 기부행위를 더 정확하게 기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Bekkers & Wiepking, 2006; Hall, 2001; O'Neil, 2001; Rooney et al., 2001), 설문 항목이 짧으면 총 기부 금액이 적게 기술되는데, 특히 소액 기부자, 기부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은 응답자,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책임감이 낮은 응답자일 수록 실제로 행해진 기부행위 보다 적게 조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Bekkers & Wiepking, 2006; Hall, 2001; O'Neil, 2001; Rooney et al., 2001).

또 다른 측정도구 설계 이슈 중 하나는 기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제시 방식이다(Hall, 2001; O'Neil, 2001; Wilhelm, 2002). Wilhelm(2002)는 기부 행위를 기억히기 위해서 질문지 앞부분에 조사하고자 하는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제공했을때가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을 뒤에 제공했을때 보다 더 정확하게 기부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SGVP는 기부와 관련한 다중 질문을 하는데, 각 질문에 기억을 상기할 수 있는 보기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기부행동을 좀 더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Hall, 2001; O'Neil, 2001; Wilhelm, 2002).

나눔 지표 측정 연구에서 제시된 명확하고 통일되지 않는 기부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측정된 기부 지표의 정확성 논쟁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Cnaan et al., 2011; Hall, 2001).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나눔의 개념을 오로지 등록된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만 기부로 정의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친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 한 것도 기부의 행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보고된 기부와 자원봉사 지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O'Neil(2001)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처럼 마이너리티 커뮤니티가 많은 곳에서는 비공식적인 기부행위가 공식적인 기부행위보다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커뮤니티의 기부행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개념의 기부행위를 적용해서 기부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반적 틀에서의 자선행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제연구에서 더 예민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다. Russell(2016)은 서구문화를 기반으로하는 기부 행위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커뮤니티가 정한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편향된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분석단위 또한 정확한 나눔지수 측정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은 기부와 자원봉사 지수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GVUS와 GSS, 오스트레일리아 GAIHS, 기빙프랑스, 네덜란드 GINPS는 가구를 조사 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헬핑아웃, 캐나다 CSGVP, 일본 JGVS, 한국의 기빙코리아 연구는 조사단위가 개인이다. 좀 더 복잡한 단위를 사용하는 연구도 소수 존재하는데, GVC는 혼합단위를, PPS는 가족단위를 조사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추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분석단위로 하지만(Wilhelm, 2002), 어떤 연구들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기부행위를 더 자세히 상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ooney et al., 2001).

또한 기부 지수 측정 연구 방법론에 관한 분석을 한 선행연구에서는 기부 지표를 조사하는 설문기관에 따라서 측정된 정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Wilhelm(2002)은 설문조사를하는 여론 조사기관이 설문을 실시할 경우 무응답자에 대해 2차 또는 3차 설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정부기관(e.g., GSS, CSGVP, NSP, and PPS)을 이용해서 설문을 한 연구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한 연구보다(GVUS, GVC) 좀 더 정확한 기부 지수를 측정할수 있었으며, 응답률도 높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숙련된 면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Wilhelm, 2002). 설문기관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대면조사가 자가기입식 설문조사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naan et al., 2016).

마지막으로, 기부 행위에 관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분

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ekkers & Wiepking, 2017; O'Neil, 2001; Stenberg et al., 2002). O'Neil (2001)은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단순비교 분석으로 도출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예를 들어 백인이 타인종보다 기부를 더 많이한다 등, 단순비교 분석에서 도출된 기부행위의 차이점이 다변량 분석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Steinberg et al.(2002)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나눔 행동의 차이점에 관한 분석결과는 단순 평균 비교이냐, 다변량 분석 비교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 외 조사 방법론적 고려사항으로는 표집방법, 응답률, 결측 데이터처리, 그리고 측정된 기부 지표를 통계청 데이터와 같은 다른 수치와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중으로 검증하는 것이 측정된 기부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 지표 측정에 관한 모든 실증 연구들을 검토하여 측정된 기부 지수를 비교 분석하고, 각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방법론을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는 국내 현존하는 기부 지표 연구의 모수를 수집하였다. 2단계로 각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설문조사 방법, 원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정보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수집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각 연구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직접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나눔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총 9개가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6개 연구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였다. 포함된 기부 지표 측정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기빙코리아; 2) 한국복지패널; 3) 사회조사; 4) 재정패널; 5) 서울시복지실태조사; 6) 서울서베이. 참고로 여성가족패널과 서울복지패널 조사는 본 연구가 실시될 당시 연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한국의 기부 총량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다른 6개의 기부 지수 측정 연구에서도 총 기부금액을 조사하고 있으나, 샘플링과 가중치 이슈 등 기부 지표 측정의 방법론적인 이슈로 인해 조사된 기부총액을 바탕으로 한국의 총 기부 총량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는 개인과 기업이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를 위해 신고한 정보를 바

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액 총액을 매년 보고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의 세금공제된 기부총액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부총량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의 기부 총량은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보고시 세금공제가 가능한 기부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기부나, 기부에 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안된 비영리조직에 기부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IV. 연구결과

1. 국내 나눔 데이터셋에서 본 나눔 행동 측정

앞서 제시한 표1에선 국내에서 실시된 나눔지표 측정에 관련된 총 9개의 연구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6개 연구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2에서 제시하였다. 기빙코리아(개인 단위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연구에서는 가구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한국복지패널, 재정패널, 사회조사,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서울서베이). 거의 개부분이 전국 단위로 조사한 연구들이며,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서울복지실태조사와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각 연구에 참여한 표본수는 다양하였는데, 기빙코리아는 2018년 조사에서 2,011명의 개인이 응답하였고, 한국복지패널은 4,124 가구에서 8,447명이 응답하였다. 2018년 재정패널 조사에는 4,816가구 7,965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조사는 2019년 18,676가구에서 약 37,000명이 조사에 응했다. 서울복지실태조사는 3,000가구를, 서울서베이는 2,000가구 43,73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조사는 전국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청 자료를 제외한 모든 연구들은 기부 참여율을 공통적으로 조사하였다. 2018년(또는 2019년)의 국내 기부 참여율은 최저 14.3%에서, 최고 53.3%로써, 연구에 때라 측정된 기부 참여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측정된 기부 참여율은 기빙코리아의 53.3%였고, 다음으로 재정패널 38.8%, 서울서베이 32.7%, 사회조사 25.6%이었며, 가장 낮게 측정된 기부참여율은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연구에서의 16.1%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평균 기부금액을 측량하고 보고하고 있는데, 보고된 평균 연간 기부금도 각 데이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게 측정된 연평균 기부금액은 재정패널에서 보고된 518,000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복지실태조사 459,000원, 사회조사 406,000원, 한국복지패널 400,000원으로 보고되었다. 가장 낮게 측정된 연평균 기부금액은 기빙코리아에서 조사된 것으로써 연평균 253,000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구들 중 기부금액총량을 측정해서 보고하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6개의 연구들 중 5개의 연구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샘플링, 가중치, 불충분한 질문으로 인해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총 기부금액 총량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몇몇 선행 연구에서 사회조사 또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총 기부총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나(김소영 외, 2018; 송헌재 외, 2019), 측정된 기부 총량과 비교분석할 자료의 부재와 원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도출된 기부총량이 국내기부 총량으로 수용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기부금액 총량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9)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로 신청한 금액이 총 13.9조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 7개 데이터의 나눔 행동과 태도 요약

	기빙코리아	한국 복지패널	재정패널	사회조사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서울 서베이	국세 통계연보
최근 조사년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조사 단위	개인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
조사지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서울시	서울시	전국
표본수	2,011	4,124	4,816	18,676	3,000	20,000	–
기부							
기부참여율	53.3%	14.3%	38.8%	25.6%	16.1%	32.7%	–
평균 기부금액	₩253,000	₩400,000	₩518,000	₩406,000	₩459,000	–	–
총기부금액	–	–	–	–	–	–	13.9조원
자원봉사 참여율	32.3%	13.7%	–	16.1%	10.0%	1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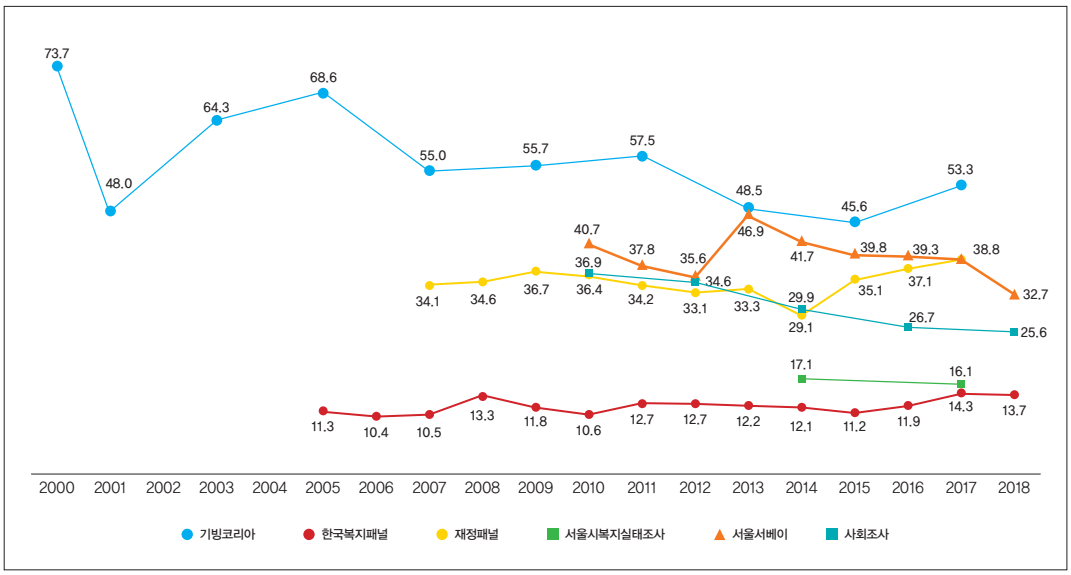
[Source]아름다운재단(2018); 보건사회연구원(2018); 조세재정연구원(2018); 통계청(2018); 서울연구원(2018); 서울시스마트시티정책관(2019); 국세청(2019)

더불어 자원봉사 참여율은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 서울서베이, 서울시복지실태조사에서 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8년 기빙코리아에서 보고된 32.2%이며, 다음으로 사회조사 16.1%, 한국복지패널 13.7%, 서울서베이 13.6%이다. 가장 낮게 조사된 자원봉사 참여율은 서울시복지실태조사의 보고로 10.0%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918년도 기부 지표분석 비교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기부트랜드도 분석하였다. 그림1과 같이 지난 20년간 측정된 기부참여율은 각 연구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기부 참여율에 대한 조사 중 가장 높은 기부참여율을 보고한 연구는 2000년 기빙코리아 연구에서 보고된 것으로써, 응답자의 73.7%가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낮은 기부 참여율은 2007년 한국복지패널 연구에서 보고된 10.4%이다. 이처럼 각 연구마다 측정된 기부참여율이 극명히 다르게 조사되었고, 더 나아가 같은 연구안에서도 조사년도에 따라서 측정된 기부 참여율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동안 기빙코리아 조사에서는 평균 57.0%의 기부참여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2000년 최고 73.7%에서 2015년 최저 45.6%까지 약 26%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5개의 연구에서는 측정된 기부 참여율이 기빙코리아에서 조사된 기부 참여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최고 평균 기부 참여율은 도시정책지표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응답자의 40%였으며, 최저 평균 기부 참여율은 평균 12.0%로(한국복지패널)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최저 평균 기부 참여율(도시정책지표)과 최고 평균 기부 참여율(기빙코리아)의 차이는 약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각 데이터마다 기부 참여율의 차이가 매우 크게 조사되고 있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연구에서 조사된 기부 참여율은 지난 20년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되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기부 참여율 변화

〈단위 : %〉



Note : 평균 기부금은 0을 제외한 금액의 평균

그림 2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평균 기부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기부 참여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부 금액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빙코리아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기빙코리아 연구가 시작된 2000년에는 155,000원 이었으나, 2018년엔 253,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평균 기부금은 2005년 조사된 한국복지패널의 513,000원이었으며, 최저 평균 기부금액은 2000년 기빙코리아 조사에서 보고된 155,000원이었다.

"기부자 감소, 기부금 증가" 현상은 기부가 재정,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기부자 전체 숫자는 줄어들어도, 한 기부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남으로써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고액기부자가 늘어날때도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Osili et al. 2019). 그림 2에 따르면, 평균기부금이 짧은 기간내에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균 기부금액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샘플링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2015년 조사된 기빙코리아의 평균 기부금액은 390,000원이었으나, 2년뒤인 2017년조사에서는 253,000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의 평균 기부가 급격히 줄어서가 아니라, 2015년의 조사에서는 초

고액 기부자가 샘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초고액기부자의 기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평균 기부금액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2] 평균 기부금액 변화 추이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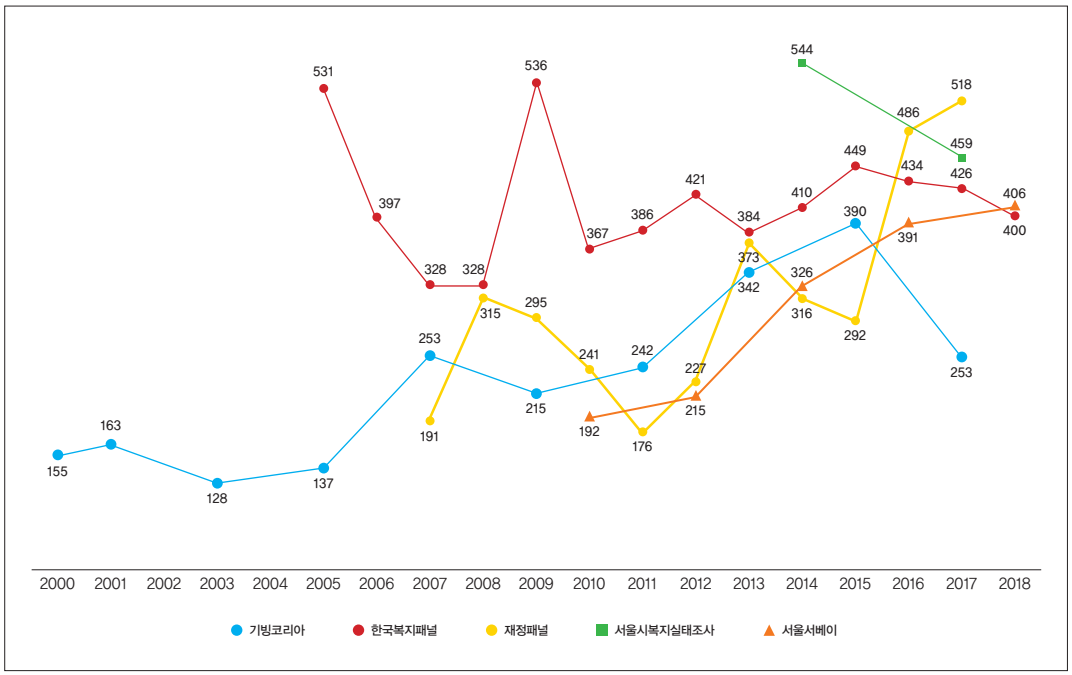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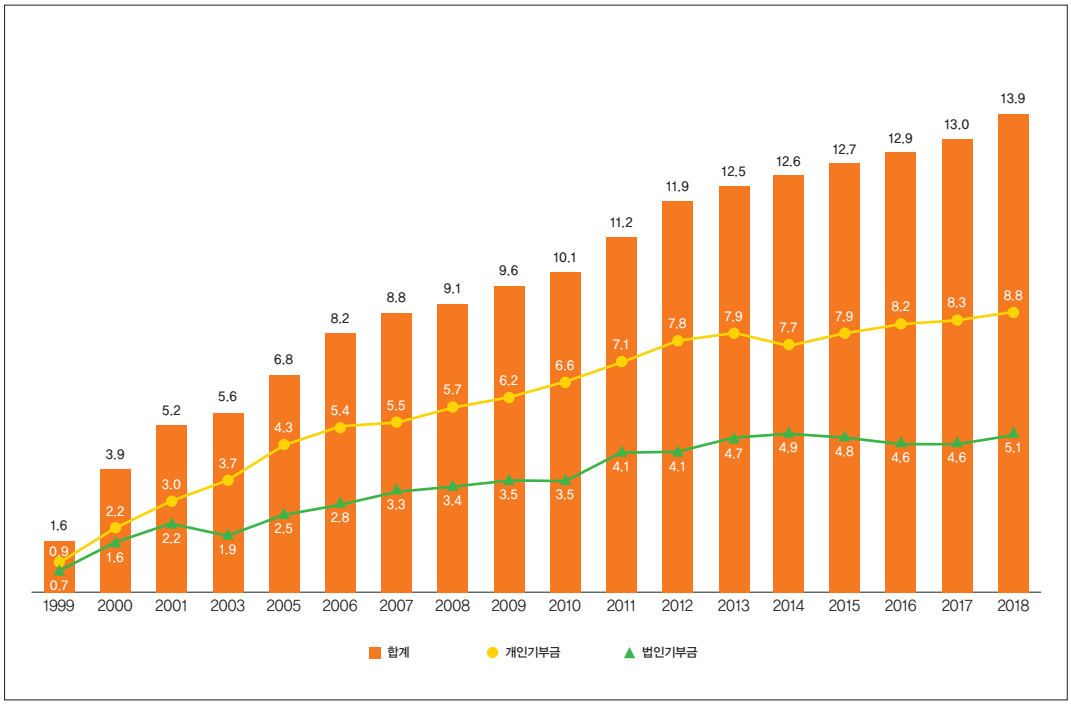


그림3은 1999년부터 2018년도 까지 국세통계연보에서 보고된 개인 또는 기업의 총 기부금 세제공제 금액을 분석한 자료료서 2018년 기준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였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9년 세금공제가 가능한 총 기부금액은 2.5조원있으며, 2018년에는 총 13.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년간 개인 및 기업이 기부한 기부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기부가 기업기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기부와 기업기부금의 총액의 차이는 년도를 더할 수록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낮은 기부율, 낮은 기부금총액, 그리고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부족으로 개인기부총액 보다 기업기부총액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름다운재단, 2018; 강철희 외., 2015; 노연희 외., 2019).

[그림 3] 한국의 총 기부금액

〈단위 : 조원〉



Note : 2018년 기준 인플레이션 적용

2.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설문항목 분석

본 연구에서 각 연구들에서 사용된 설문지 내 기부항목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3에서 보듯이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매우 간단한 질문만 포함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부 연구들은 현금기부금액만 질문하고 있는데,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에서는 현금 기부 이외에 현물기부에 관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참여 여부 및 평균 기부금액 이외에 간단한 기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정패널에서는 기부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며,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는 기부의 정기성, 향후 기부 의향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서베이는 기부 방법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는 기부참여 여부 및 기부금액 기부행위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인 기부행위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부처, 기부의 정기성, 향후 기부 의향, 기부 방법, 기부 동기, 기부하지 않는 이유, 기부 희망 분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환경, 기부처 인지 경로, 유산 기부 의향 등 이다.

재정패널을 제외한 모든 연구들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지만, 자원봉사와 관련된 설문 항목은 자원봉사 참가 여부만 질문했을뿐 봉사 시간, 지속성 여부 등 자원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설문지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각 데이터셋의 설문 문항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	재정패널	사회조사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서울서베이
기부참여 여부		o	o	o	o	o	o
평균 기부금액		o	o	o	o	o	
공식 / 비공식	현금기부	o	o	o	o	o	
	현물기부	o			o		
기부처		o		o			
기부 정기성		o			o	o	
향후 기부 의향		o			o	o	
기부 방법		o			o		o
기부 동기		o			o		
기부하지 않는 이유							
기부 희망 분야		o			o		
기부문화 확산		o			o		
기부처 인지 경로		o			o		
유산 기부 의향		o			o		
자원봉사		o	o		o	o	o

표4에서는 각 연구에서 사용된 기부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과거 기부행위에 관한 응답자의 기억을 정확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관한 질문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6개 연구 모두가 기부와 자원봉사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조사에서 한해의 총기부 금액을 회상하는데 있어서 "지난 일년간 총 얼마를 기부하셨습니까?"라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지난 일년동안의 총 기부행위에 대해서 회상하도록 질문하고 있다. 어떤 연구에서도 기부금액을 명확히 회상하기 위한 단계적인 설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에 현금/현물 기부에 관한 질문을 구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조사별 질문 구조

	각 조사별 기부 질문
기빙코리아	● 기부여부 : 당신은 작년 한해 동안 기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금, 현물 포함) ● 기부처 : 작년 한해 동안 물품을 제외한 금전(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을 기부하신 분야는 어디입니까? ● 기부금액 : 작년 한해 동안 선택하신 각 분야에 대해 얼마를 기부하셨나요?
한국 복지패널	● 기부여부 :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기부의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액 : 귀하는 지난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셨습니까?
재정패널	● 기부여부 : 귀 가구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부금 지출이 있었습니까? ● 기부금액 : 각 가구원이 기부금을 낸 분야는 어디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도 연간 총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회조사	● 기부여부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현금 기부 또는 물품기부의 주기를 하나 선택하여 O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기부 : 월단위 / 분기(3개월)단위/ 반기(6개월)단위 / 기타 / 주기적으로 기부한 적 없다 ● 현물기부 : 월단위 / 분기(3개월)단위/ 반기(6개월)단위 / 기타 / 주기적으로 기부한 적 없다
서울시 복지실태 조사	● 기부여부 : 귀하는 최근 1년간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 기부금액 : 최근 1년 간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물건으로 기부한 것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해 주십시오
도시정책 지표조사	● 기부여부, 금액 질문 없음 ● 기부참여 형태 : 귀하가 지난 1년간 행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 통계연보	● n/a

마지막으로, 각 연구에서 정의된 기부에 관한 개념틀을 분석하였다. Hall(2001)이 강조했듯이, 응답자의 기부행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확한 기부행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모든 나눔 연구들에서는 기부에 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응답자들이 기부행위에 관한 공통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부행위를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는 각 연구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연구에서 조차 조사시기에 따라서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1년도 기빙코리아 조사에서는 기부를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 돈, 재산,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종교 기부와 십일조를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돈이나 자산을 내는 것(헌금, 보시)는 포함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기부행위 중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예를들어 노숙인이나 부랑인에게 직접제공한 기부행위)는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면, 자선기관을 통한 기부행위만 기재하도록 되어있었다. 더 나아가 기부단체를 통한 기부 중에서도 현금기부만 기재하도록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친구, 친척과 관련된 경조사비 등 상호부조 문항은 조사 시기에 따라 기부행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기도 하였다. 사회조사에서 정의된 기부행위는 직접 관계없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전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경조사비, 정치후원금, 친목회비, 종교적 헌금 같은 기부행위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나,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기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를 제외한 다른 연구에서는 기부행위에 관한 정의가 없이,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에 기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나눔 지수 측정 연구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각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을 분석하여 측정된 나눔 지수의 신뢰성과 명확성에 관한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한국 나눔지표 측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총 9개의 연구들 중 분석을 위해 6개의 연구 —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 사회조사, 재정패널, 서

울시복지실태조사, 서울서베이 — 를 통하여 측정된 기부 지표와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 총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 지표를 측정위한 연구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연구에서 기부 지표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인 이슈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제기된 조사 방법론적 이슈는 측정된 한국의 기부지수의 신뢰성과 명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임에 틀림없다.

구체적으로 측정된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이 각 연구 내에서 또는 연구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빙코리아의 기부 참여율은 2000년에 73.7%이지만 2001년 48.0%으로 1년만에 조사된 기부참여 비율이 26%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기부참여율의 차이는 동일 년도에 조사된 연구들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기빙코리아의 기부 참여율은 53.3%이지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14.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측정된 평균 기부금액도 비슷한 이슈가 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고 513,000원 vs. 최저 155,000원). 이와 같이 기부 지표의 편차는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와 명확도의 이슈를 제기하게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눔지수 측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나눔지수 측정에 있어서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선행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기부에 대한 정의의 차이는 기부지수 측정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틀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국내 기부 지수 측정 연구에서 기부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한국복지패널,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서울서베이, 재정패널), 이로 인해 응답된 기부참여와 평균 기구금액이 동일한 용어의 이해를 기반해서 측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응답자가 암묵적으로 이해한 기부의 정의로 기제된 기부행위는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정확한 기부 행동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설문에서 자선적 기부의 스펙트럼을 언급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빙코리아, 사회조사와 같은 연구에서는 상호부조, 종교기부, 그리고 정치기부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부에 관한 개념 정의로 인해 측정된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이 실제 한국인의 기부행위에 비해서 축소보고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기부 행동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단계의 회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정확한 기부행위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Wilhelm, 2002), 어떤 국내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기부 회상을 촉발할 수 있는 다층구조의 단서(multi-layering of cues)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몇몇 데이터셋은 기부행동에 관한 예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지난 1년간의 기부행위를 자세히 상기하기에는 역부족이였으며 매우 간단한 문항과 안내문으로 1년간의 기부행위를 측정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강조하였듯이(Bekkers & Wiepking, 2006; Cnaan et al., 2011; Hall, 2001; O'Neil, 2001; Wilhelm, 2002), 기부에 대한 회상은 정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기부를 자세히 기억하도록 독려할수 있는 장치를 설문지에 꼭 포함해야한다.

셋째, 한국의 나눔 지표를 측정하는데 측정 도구의 디자인 이슈가 한축으로 있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샘플링, 분석단위, 그리고 데이터 결과의 신뢰성 이슈가 있다. 사회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군집 표본추출(multiple cluster sampling)과 같은 임의 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연구도 확률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추출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극단값(outlier)등에 의한 측정금액의 외곡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선 예시에서 살펴 본것과 같이, 평균 기부금액이 2015년 기빙코리아 조사와 2017년 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초고액기부자의 기부정보가 2017년에 포함되지 않아서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은 중저소득 가구 비율이 50%이지만, 연구 결과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평균 기부금액 등을 산출하고 있다. Wilhelm(2002)이 강조했듯이, 특정 집단의 과다 표집은 기부 참여율이나 평균 기부금액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 평균 기부금액을 산정할때는 조사된 샘플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해서 측정되어야한다(Bekkers & Weiking, 2006; O'Neil, 2001; Wilhelm, 2002).

설문 조사 단위도 또다른 방법론적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국내 기부지표 측정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설문 조사 단위가 가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예외, 기빙코리아), 응답자가 가구주 또는 배우자 인지, 아니면 가구 구성원인지에 대한 구별이 정확한 기부행위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ilhelm(2002)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응답자는 전체 가구의 기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단위의 분석은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 기부금액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cross-check)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개별 연구에서 측정된 기부 총량은 총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상호 대조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Rooney et al., 2001; O'Neil, 2001), 한국에서는 총 기부금액 측정 정보가 부족하고, 측정된 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명확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 어떤 실증데이터도 비교대상이 될 만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부총액을 사용 할 수 있나, 이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기부에 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데이터도 좀 더 자세한 기부금액

총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모든 비영리단체의 회계보고를 통한 총 기부금액 등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나눔 문화가 전 세대를 거쳐 성숙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나, 측정된 국내 기부지표는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각 연구에서 조사된 한국의 기부 지표들이 기부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들 이지만, O'Neil(2001)이 강조했듯이, 나눔지표 측정 연구에 있어서 연구 결론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나눔 행동을 측정하는데 보다 엄밀하고 전문적인 고려가 있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들이 좀 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석은 & 안영찬. (2014). 한국의 비영리부분 성장에 대한 이해: 사회자본의 역할 분석. 한국행정연구, 23(4), 89-112.

김소영, 노법래, 조원희, 이창숙, 전예지, 유재윤. (2018). 2018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노연희 (2013). 국내 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동향 분석. 2013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노연희, 박미희, 노법래, 전현경, 윤재원 (2019). 2020 기부 트랜드: 지나간 10년, 다가올 1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스마트 도시정책 센터. (2019). 2020도시정책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연구원. (2018). 2018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시 복지재단. (2010). 2010 서울시 복지패널 2차 본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시 스마트 도시 정책 센터. (2018). 서울서베이 보고서.

송헌재, 고선, 김지영. (2019).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개인기부 규모 유라시아연구, *16(3),* 124-140.

아름다운재단. (2018). 기빙코리아2018. 서울: 아름다운북.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 (2018).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여성가족패널 1-6차 웨이브 조사자료.

Barham, V., Devlin, R. A., & Owusu, R. (2017). Strategic philanthropists: Who are they and do they matter? (Working paper X 1717E, Department of Economics Faculty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Ottawa). Retrieved from https://socialsciences.uottawa.ca/economics/sites/socialsciences.uottawa.ca.economics/files/1717erev_0.pdf

Beautiful Foundation (2018). Giving Korea 2018-Key philanthropic index in Korea. Paper reported at the 18th Donation Culture Symposium, Seoul, Korea.

Bekkers, R., Boonstoppel, E, & De Wit, A. (2018a). *Giving in the Netherlands Panel Survey - User Manual (version 2.9).* Center for Philanthropic Studies, Vrije Universiteit (VU) Amsterdam. Retrieved from https://osf.io/4unf9/

Bekkers, R., de Wit, A., & Felix, S. (2018b). *Twenty years of generosity in the Netherlands.* Paper presented at the 46th ARNOVA Conference, Grand Rapids, MI, USA. Retrieved from file:///C:/Users/skim67/Downloads/Generosity_20years_v9.pdf.

Bekkers R., & Wieking P. (2006). To give or not to give, that is the question: How methodology is destiny in Dutch giving data. *Nonprofit and Voluntary Research Quarterly, 35(3),* 533-540.

Breen O. B., & Quinn, P. (2019). Philanthropy giving in Ireland: A scoring project.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Research Network on Philanthropy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Basel, Switzerland.

Breez, B. (2013). How donors choose charities: The role of personal taste and experiences in giving decisions. *Voluntary Sector Review, 4(2),* 165-183.

Brooks, A, C., & Lewis, G. B. (2001). Giving, volunteering, and mistrusting governmen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0(4).* 765- 769.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18). Doing good index 2018: Maximizing Asian' s potential. Retrieved from http://caps.org/our-research/doing-good-index-2018/

Charities Aid Foundation (2019). CAF UK giving 2019: An overview of charitable giving in the UK. Retrieved from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caf-uk-giving-2019-report-an-overview-of-charitable-giving-in-the-uk.pdf

Choi, J. (2011). From a recipient to a donor stat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orea's OD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5(3),* 37- 51.

Choi, J. J. (2012).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The Korean experiences.* Hong Kong: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Cnaan, R. A., Jones, K. H., Dickin, A., & Salomon, M. (2011). Estimating giving and volunteering: New ways to measure the phenomen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3),* 497-525.

Gouskova, E., Andreski, P., & Schoeni, R. F. (2010). Comparing estimates of family income in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nd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1968-2007(Technical Series Paper, 10-01). Retrieved from https://psidonline.isr.umich.edu/publications/Papers/tsp/2010-01_comparing_estimates_of_fam.pdf

Hall, M. H. (2001). Measurement issues in survey of giving and volunteering and strategies applied in the design of Canada's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Nonprofit and Voluntary Research Quarterly, 30(3),* 515-526.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2017). *2017 Giving Trend in Japan.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https://jfra.jp/wp/wp-content/themes/jfra2015/img/english/pdf/givingjapan2017.pdf*

Kang, C. H., Auh, E. Y., & Hur, Y. (2015). Giving in Korea: A nation of givers for the population under public assistance. In. P. Wiepking & F. Hondy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 (pp. 426 - 454). London: Palgrave Macmillan.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4(6),* 1-71.

Kim, S. J., & Kou. (2014). Not all empathy is equal: How dispositional empathy affects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26(4),* 312-334.

Lee, H. (2018).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Country report 2018-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s://scholarworks.iupui.edu/handle/1805/15995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18). The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Retrieved from https://globalindices.iupui.edu/environment/downloads/index.html

Low, N., Butt, S., Ellis, P., and Davis Smith, J. (2017). Helping out: A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London: Cabinet Office.

Morgan, J. N. (1974). National Study of Philanthropy.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ICPSR/studies/7496/datadocumentation

Nesbit, R. (2010). A comparison of volunteering data in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nd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9(4),* 753-761.

National Tax Service (2019).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2019. https://www.nts.go.kr/eng/resources/resour_31.asp?minfoKey=MINF7520080211223206

O'Neil, M. (2001). Research on giving and volunteering: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05-514.

O'Neil, M., & Roberts, W. L. (2000). *Giving and volunteering in California.* San Francisco: University of San Francisco, Institute for Nonprofit Organization Management.

Osili, U. O., Clark, C., & Han, X. (2019). 16 years of charitable giving research: Th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s Philanthropy Panel Study (PPS). Retrieved from https://scholarworks.iupui.edu/handle/1805/21470

Piper, G., & Schnepf, S. V. (2008). Gender differences in charitable giving in Great Britain.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9,* 103-214.

Rooney, P. M., Mesch, D. J., Chin, W., & Steinberg, K. S. (2005). The effects of race, gender, and survey methodologies on giving in the U.S. *Economics letters, 86,* 173-180.

Russell, B. (2016).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measurement of volunteering in the global South. Paper presented at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ISTR). Stockholm, Sweden.

Smith, B., Shue, S., Vest, J. L., & Villarreal, J. (1999). Philanthropy in communities of color.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Steinberg. K. S., Rooney, P. M., & Chin, W. (2002). Measurement of volunteering: A methodological study using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1(4),* 484-501.

Wiepking, P., & Handy, F. (2018). Documentation Individual International Philanthropy Database (IIPD): A comparative study of global giving- 19 country IIPD. Version 1.1., Indianapolis: IU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Wilhelm. M. (2002). The distribution of giving in six surveys. Retrieved from https://archives.iupui.edu/bitstream/handle/2450/7722/the_distribution_of_giving_in_six_surveys.pdf?sequence=1

Wilhelm, M. (2006). New data on charitable giving in the PSID. *Economics Letters,* 92, 26- 31.